

“ 월간 <베이커리>는 이제 또 다른 변신을 꿈꿉니다.  
창간 11주년을 맞아 11월호부터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재무장하고  
세련된 매거진 디자인을 선보일 것입니다. ”



##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대한제과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월간 <베이커리>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협회 창립 40여 년과 제과기술경영전문지인 월간 <베이커리>를 창간한지 어느덧 11년을 맞았습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본 협회와 월간 <베이커리>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세월 동안 본 협회와 월간 <베이커리> 발전에 필요한 조언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과 각 지회(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베이커리> 창간 11주년을 맞은 올해는 제과·제빵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과협회회관 건립이라는 역사적 큰일을 이룬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지난 7월 1일 30여 년의 충무로 시대를 마감하고 제과·제빵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갈 서초동 제과협회회관 시대를 맞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회관건립기금모금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업계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각 단체, 그리고 협회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신 지회(부)장과 사무국장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대사(大事)였습니다. 이 영광과 공로를 모든 분께 드립니다. 특히 업계원로, 관련업체, 제과업계의 미래를 이어갈 학생 여러분과 제과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참여는 밝은 내일의 비전을 보는 것 같은 큰 기쁨을 느낍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350여 평의 협회회관은 업계의 기술발전과 정보의 산실로서 앞으로 세미나실 및 교육실을 시작으로 회의실, 연구실, 역사박물관, 자료열람실 등이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협회회관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는 많은 비용 부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업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협회회관이 제과업계의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베이커리 시장은 유례없는 경기 불황과 원재료 가격 인상, 베이커리 업계와 타업종의 영역파괴, 대기업의 진입, 중국시장 개방에 따른 원료 파동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한숨만 짓기 보다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마케팅 경쟁력 제고와 첨단정보 및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회(부)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협회의 위상강화와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베이커리>는 이제 또 다른 변신을 꿈꿉니다. 창간 11주년을 맞아 11월호부터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재무장하고 세련된 편집 스타일을 선보일 것입니다.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외 정보와 일류 셰프의 노하우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소개할 것입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을 강화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제과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본 협회와 월간 <베이커리>를 아끼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여 주신 회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협회와 월간 <베이커리>가 더욱 튼튼히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영모